

“서구 불교학 재평가 움직임”

김응철 교수

이민용 교수

“승-재가 신행공동체 구성”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는 6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강의를 6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강의실에서 '99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민용교수(美 하버드대)가 구미불교학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한 '불교학 연구의 문화배경에 대한 성찰'과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학교)의 '불자의 종교의식 및 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이 두 발표는 서구의 불교 열풍과 침체되고 있는 한국불교의 동향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불교학 연구의 문화배경에 대한 성찰'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이민용 교수는 "인도화의 한 분파로 시작된 서구 불교학 연구는 불전에 대한 구전자료를 무시한 불전내의 불교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최근들어 불교학 연구는 신앙의 불교로 재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19세기 중반 부르주아지(인도불교사 입문)와 (법화경 역주)가 출간되면서

한국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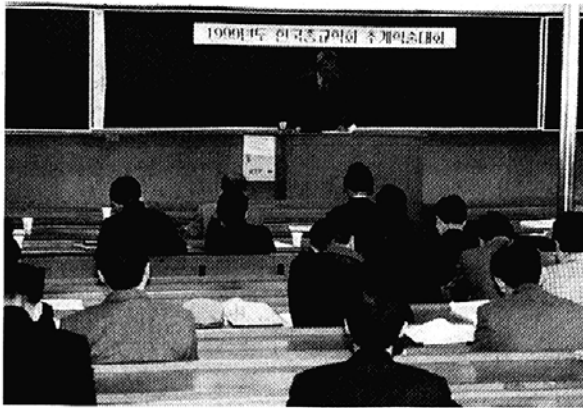
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서구 불교학은 아편전쟁과 인도 병란 사건 등 정치적 혼란속에서 출발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시대적 문화배경으로 인해 불교학 연구는 신앙의 실상을 배제한 경전속의 역사, 문헌속의 역사, 즉 불교의 종교사상은 철저하게 문헌속의 종교사상으로 일관됐다"고 말했다. 그 이래로 불전전기에 대한 연구를 들고 있다.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이 아닌 역사적 대상, 학문상의 존재로만 부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몬드의 (영국 불교의 발견)을 계기로 불교학 연구의 반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근 서구의 불교연구 동향에 대해 이 교수는 "상상속의 불교, 책상위의 정형화된 불교가 아닌 '신앙되는 불교'를 새로운 연구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재평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고학적 발굴 작업

을 통한 박물관적 지식에서 벗어나 생활의 지혜를 찾는 원천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는 환경·여성문제에 까지 걸부시키는 등 새로운 시각의 불교학이 연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현실문제의 대안이 불교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 대안이 경전이 아닌 신행 현장속에서 찾아야 한다. 불교적 삶의 방식, 실천행이 어떻게 들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불교학연구의 관건이다"고 말했다.

불교학과 발표회에서 김응철 교수는 '불자의 종교의식 및 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란 주제를 통해 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통계청, 한국갤럽 자료를 토대로 발표에 나선 김 교수는 불자 인구의 변화추이에 대해 '지속적인 침체 현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6일 성균관대에서 개최된 한국종교학회 '99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이민용 교수의 '불교학 연구의 문화배경에 대한 성찰' 등을 비롯 불교학 관련 논문 5편이 발표됐다.

다. 침체원인은 사회 환경 및 종교 의식, 행태 등 시대적 변화속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방안으로 △승·재가 신행공동체 구성 △승·재가 불교의례 △신도교육 △단체적 신도들의 신행활동 유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교수는 이에 앞서 스님들이 수행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여법하지 못한 일부 스님들의 모습과 행동들이 만연해 불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신도들이 있어도 이끌어 줄 스님들이 없다면 구심점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스님들의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

다. 또 김 교수는 향후 불자의 종교 의식과 행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행행중(信解行證)의 다차원적 측정지표를 정교화해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불교철학의 서구적 수용과 전망'(이동훈교수·명지대), '바가바드기타'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호성교수·동국대),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생선도와 해탈도'(안승준·동국대), '인도에서의 밀교와 중세 사회사'(이광수 교수·부산외국어대)가 각각 발표됐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nia.com)

루디피아 사이버 기행

오디안 불교센터

태평양 연안 불교사원 소개 미국내 티벳불교 위상 불 기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명불을 꼽자면 당연히 히 메르스 불교사원인 '오디안 불교센터'이다. 이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시간여 해안도로를 달려야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 '오디안 불교센터'를 방문하면 이 곳을 단박에 찾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유럽등 세계각지에서 찾아오는 티벳불교 신자 및 스님들의 수행처를 고화질 그래픽으로 면면히 살펴볼 수 있다.

석가의 탄생지에서 이름을 따 오디안 불교센터로 불리는 이 사원은 티벳 고대불교사원을 재현한 구리돌양식의 본당, 탑 모양의 11층 건물 전체가 금박으로 빛나는 거대한 수련장, 수만명의 불교성정을 보관한 4개의 서가들 북미주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깨달음의 아름다운 경지'를 상징한다는 이 사원의 건축양식과 조각품들과 경관은 교사와 심리학자, 전문가들이 다수인 버클리일대 수백명의 불자들이 중심으로 신자들이 일일이 걸고 닦아가며 많은 부분 직접 만든 것이다.

금동수련장의 외부 벽면을 장식한 2백60개의 소형 불상들은 신도들이 티벳의 옛 원형들을 되살려 직접 제작한 것이다. 또 본당을 둘러싼 연못 주변에 또 꽃밭, 장미화원등 신도들에 의해 심어진 나무만도 20만그루에 이른다.

오디안 불교센터는 21년간에 걸친 미국 불자들의 헌신적인 봉사과 헌금으로 지어진 탓에 정확한 건축비는 셀하기 어려

우나 어렵잡아 1천만 달러(약 80억원)에서 1천2백만달러(약 96억원)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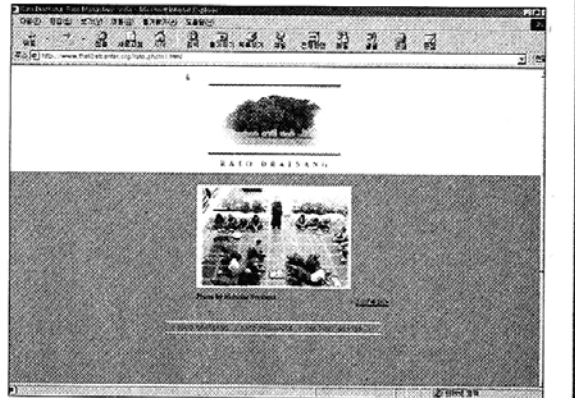
이 사원은 중국의 박해를 피해 68년 미국으로 건너온 타탕 톨루 린포쉬의 주도로 건립됐다. 티벳의 불교교과과정에서도 인도에서 처음으로 티벳에 전해졌던 7세기경 고대불교에 뿌리를 둔 님파파를 따르는 타탕 톨루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일대에 불교성정을 출판하는 님마퍼블리싱, 명상연구센터인 니 임마인스티튜트 등을 설립하고 사라져가는 티벳불교의 경전과 포교에 헌신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오디안 개인 당시 미국 언론의 반응을 정리해 놓았는데, "미국내 대중종교로 확산되고 있는 티벳불교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내 불교신자 수는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추산되고 있다", "불교는 자기성찰을 강조한다. 나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디안에서 이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실 오디안은 우리나라 사찰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미국 버클리에 있는 님마인스티튜트 등에서 일교육이나 참여활동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사원에 초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해 '오디안 불교센터'를 방문하는 데에는 자격 조건이 따르지 않는다. 가상 공간에서라도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nia.com)

△http://www.thetibetcenter.org/rato_photo1.html



“기독교도 화장 적극 수용해야”

오세종 목사, 불교어산학교 심포지엄서 주장

학술단신

한국문학학 학술회의

한국문학연구소(소장 임기중)는 19일 오후2시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한글시대의 불교언어와 불교문학'이라는 주제로 제19차 한국문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불교산문 연구(인권환 고려대 교수) △현대 불교사 연구(홍신선 동국대 교수) △불교언어 연구(김무봉 동국대 교수) △불교사가 연구(임기중 동국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문학연구소 5개년 연구계획의 1차년도 사업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한글 창제이후부터 갑오경장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토회 정보화 세미나

부산 정토회 정보자료실은 11일 부산 적십자회관 6층 제2회의실에서 시민단체 활동가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정보망 활용방안(오병일 진보네트웍센터 사원팀장)' '정보사회의 도약, 시민단체 지원현황 및 과제(박근덕 시민사회네트 기획국장)에 대해 발표됐다.

목사가 불교계 주최 심포지엄에서 "화장은 불교장법이고, 부활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매장을 선호해온 한국 기독교계가 한국의 모자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교조적 주장만으로 매장을 고집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불교어산학학교(교장 인목스님)가 17일 중앙승가대 정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학 교종교의 생사관과 상징례법' 심포지엄에

서 오세종 목사(감리교 암사교회)는 '화장(火葬)과 부활에 관하여'라는 발제를 통해 "기독교 상·장례의식은 내용과 중심사상에 있어서는 성서적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유교적인 의례 사상과는 판이하지만 그 외형적 절차는 서양 기독교 의식의 절차보다 재래 유교적 절차와 흡사되어 대담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한국 교회는 의식을 전향해 화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납골묘 등의 개발과 그에 따른 예

문과 의식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오 목사는 화장과 매장 풍습에 관한 우리나라 불교와 유교, 그리고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전통과 성경의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 기인한 다양한 종교의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보광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이 '불교계의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몇가지 과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된 불교의식은 종교에 대한 소속감과 단결심을 고취하는 수단이 된다"며 "불교의례의 한글화는 물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의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심청전 무대 전남 곡성이다”

관음사 연기실화 근거

양권승 박사 주장

'심청전' 무대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가 아니라 전남 곡성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곡성군(군수 고현식)은 오산면 소재 관음도량인 관음사 사적지에 '심청전'의 원형이라고 할 연기실화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곡성이 효의 본고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음사사적지 연기실화에 따르면 백제 시대 곡성 대흥연에 살던 가난한 장남 원랑의 딸 원홍장의 효심은 중국에 까지 알려졌다. 원랑이 화주승에게 말을

시주한 뒤 홍장이 중국에서 진나라 왕후가 되었고, 홍장이 관음성상을 돌배에 실어 고국 땅에 실어보냈더니 옥과망의 성덕 처녀가 모셔다 곡성에 관음사를 창건해 원랑도 개안(開眼)하게 되었다는 것이 실화의 요지.

곡성군의 요청으로 고증작업을 하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양권승 박사는 "인당수 부분만 빼고 관음사 연기실화가 '심청전'과 90% 일치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내달 8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학술발표회를 열어 백령도설을 뒤집고 곡성군이 '심청전'의 고장임을 밝힐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태아령 천도 및 새천년을 위한

제 13 차 백일기도 (佛光普照) 봉행안내

천봉산 대원사는 백제 무녕왕3년(서기503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백제 고찰입니다. 그간 대원사에서는 태안지장보살을 모시고 태아영가의 천도를 위한 백일기도(년2회)와 1박2일의 단기수련회를 주말마다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태아령 천도를 위한 제13차 백일기도를 임재합니다.

- 태아령이란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

태아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 첫째, 셋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원한과 고통속에 구원을 방향하는 어린 영혼들의 천도를 발원하고 봉행되는 100일 기도에 여러분들의 진지한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1999년 11월22일 오전10시(임재) ~ 2000년 2월19일(회향)
- 동참의비 : 기도금(5만원) 영가위패 1인당(5천원)
- 은 락 인 : 조흥은행 322-06-008780 (석현장)
- 연 락 처 :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 ☎ 전화 (0694) 852-1755 / 팩스 (0694) 853-0009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실한 소책자 '태아령 천도 공양법'을 보내드립니다.

1999년 11월 15일

백제고찰 대원사 주지 석현장 합장